

반도체 추가세수 기금 적립… 靑 “쌈짓돈 아닌 재정 안전판”

호황기 재원 쌓아 세수 변동성 완화
지방성장·메가프로젝트 투자 확대
교육·인재 계층 신설 세대지위 강화
세수 부족 땀 일반회계 결손 보전

청와대는 최근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유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 많이 걷힌 세수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쌈짓돈'이라는 논란이 일자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초과 세수 등을 별도로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세수 변동성 완화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제안한 기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반도체 사이클로 인해 발생한 특수로 세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의 사례를 들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했을 방향을 보니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다 써버리거나 했다”며 “사이클이 끝나서 세금이 안 들어올 때는 세수 결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작업이 22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이전 작업을 마무리 중인 청와대의 모습.

손이 생겼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려간 2023·2024년의 경우 100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바람에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게 됐으면서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의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만원을 써서 내일 100만원이라는,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주로 '미래대응기금'을 지방주도 성장, 3대 메가프로젝트나 7대 SEED 프로젝트 등 미래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

이다. 이 관계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래에 대한 투자 방향을 갖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1020세대에 대한 투자로 풀이된다. 특히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재원 마련이) 현재

교육재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 계층을 넣어서 이 부분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매년 국채를 100조~110조원 규모로 발행하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느냐”며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내후년에는 100조원 이상,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해는 이렇게 하고, 한 해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가채무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며, 줄어들고 있다면서 “추경에서도 국채를 일부 상환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가채무 건전성을 전하고

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일정 수준 국채를 덜 발행하는, 상환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주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내에서 자유롭게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산을 통해 편성하고 예산을 통해 쓴다”며 “쓸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큰 범위로 지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쓰려면 정식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 마음대로 쓸 수는 없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SK바이오팜, 1.1조 신약 베팅 美서 ‘제2 엑스코프리’ 키운다

오파칼림 전 세계 독점권 확보
2029년 미국 출시 목표 임상 2·3상
RPT 항암제도 FDA 중심 개발

SK바이오팜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던진다. 국산 신약인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미국에서 발매해 글로벌 중추신경계(CNS) 시장의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데 이어 ‘항암’ 분야로 사업 영역을 본격 확대한다. 이미 검증된 신약 경쟁력으로 창출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적극 투자해 글로벌 비파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복안이다.

SK바이오팜은 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바이오헤브으로부터 차세대 뇌전증 신약 후보물질 ‘오파칼림’을 총 7억 9500만 달러(한화 약 1조 996억원) 규모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금액에는 선금금, 개발 및 허가 단계별 마일스톤 등이 포함됐다. 선금금은 현금 총 4억 달러로 이 중 3억 5000만 달러를 거래 종결 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달러를 거래 종결 1년 후 지급한다.

마일스톤은 향후 개발 및 허가 진행에 따라 최대 3억 95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일부 마일스톤 및 로열티는 원개발사인 뉴 바이오사이언스에 지급된다.

계약 종결 후 SK바이오팜은 오파칼림 전 세계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되고 오파칼림 외에도 Kv7 디스커

버리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Kv7 계열 화합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

◆2040년대까지 ‘현금 폭포수’

‘오파칼림’은 새로운 기전의 뇌전증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뇌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Kv7 칼륨 채널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성인 부분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3상에 진입해 있다. SK바이오팜은 오는 2029년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한다.

유창호 전략부문장은 “오파칼림 물질특허가 2039년까지이고 특허기간 연장 제도를 활용하면 2040년대 중반까지 장기 캐시카우로 매출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승부처는 무조건 미국”

아울러 이번 오파칼림 도입은 SK바이오팜이 추진해 온 후속 제품 기반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향후 계획대로 오파칼림 신약 승인에 성공할 경우, SK바이오팜은 단일 제품 회사를 벗어나 다수의 혁신 신약을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국내 유일한 신약개발회사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된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올해 10월 RPT 항암 신약의 첫 환자 투여를 시작으로 모든 임상과 승인 타겟은 무조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항암 시장을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미래AX공학관, 연구 혁신의 시작이 되다

미래 AX 공학관에서 펼쳐질 초격차 연구 혁신,
중앙대학교는 인류의 내일을 바꿀 '메타 밸류(Meta-Value)'를 창출합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첨단 교육 플랫폼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2026학년도 상반기 정부재정지원사업 1,927억 수주
- BK21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5개, ICT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2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교육부 첨단분야 정원 증원 승인 학과
[일반대학원 - SI학과/융합보안학과 등 10개 학과, 첨단영상대학원 - 메타버스융합학과]
- 첨의CT공과대학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신설

■ AX(AI 전용)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생태계

- 반도체 클린룸과 GPU 서버실을 갖춘 '미래 AX 공학관' 건립
- 사람·학문·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집단 융합 연구 공유 플랫폼' 구축

미래 AX 공학관 착공(2026)

DO! THE BEST

중앙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6.9.8. (화) ~ 9.11. (금)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 02)820-6393